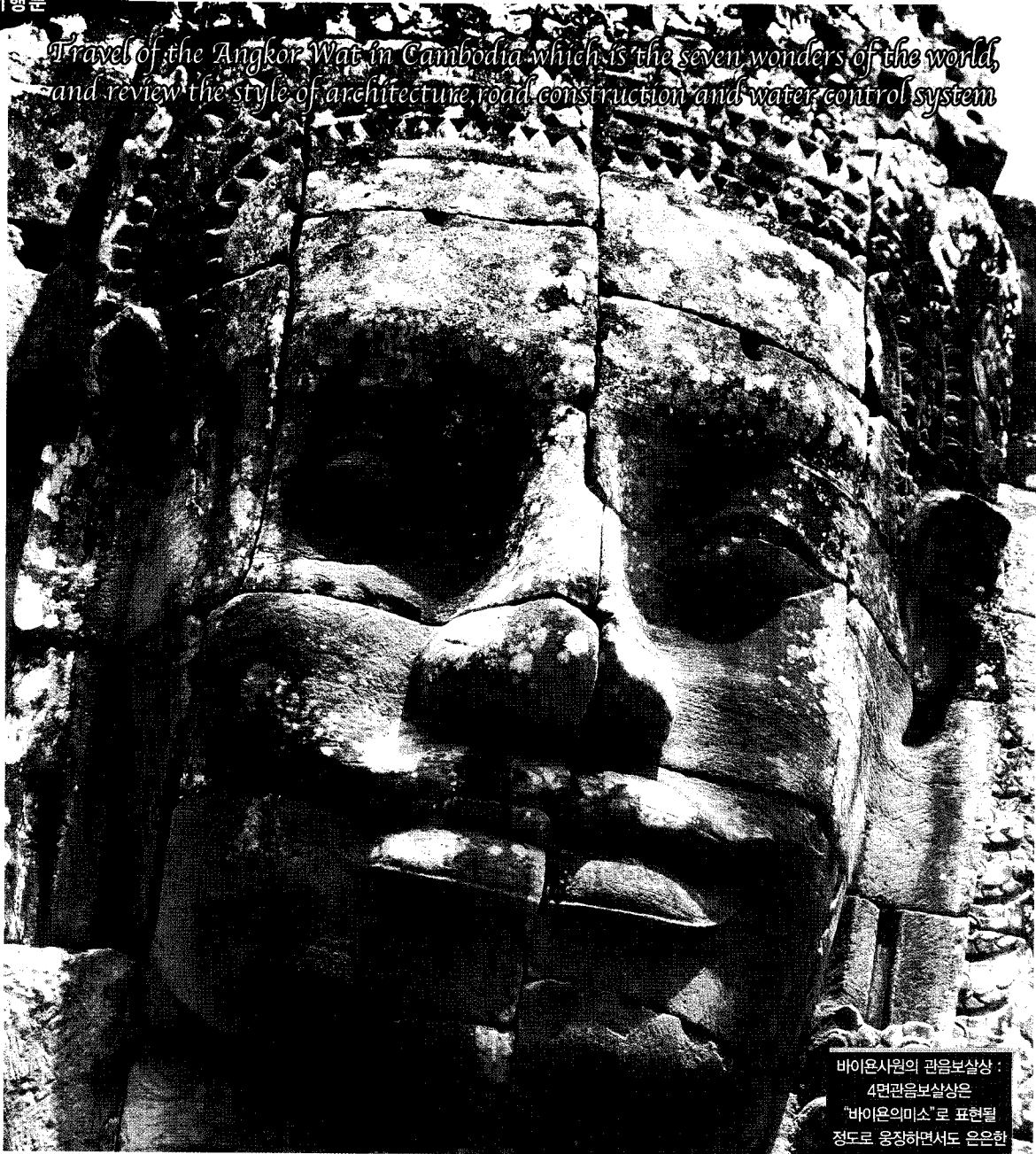


Travel of the Angkor Wat in Cambodia which is the seven wonders of the world, and review the style of architecture, road construction and water control system



바이온사원의 관음보살상 : 4면관음보살상은 "바이온의미소"로 표현될 정도로 웅장하면서도 은은한 휴먼모티프가 특징이다.

세계7대 불가사의, 캄보디아 앙코르 왓 (Cambodia Angkor Wat) 유적지와 건축양식, 도로 및 灌溉施設 小考

앙코르왓은 고대 앙코르제국 일본 아니라 전 인도차이나 전체에 걸쳐서 광대한 도로망을 가진 현재 캄보디아의 상징이다. Anchor Wat is a symbol of modern Cambodia, but also of the ancient Angkor Empire, with its vast network of roads weaving throughout all Indochina.



조 규 영 회원

kychope@naver.com

(주)상지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상무

건설안전기술사 / 토목사공학기술사

토목품질시험기술사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기술위원

정글에 숨겨진 앙코르 왕궁의 자취를 볼 때 느껴지는 것은 “사라져 가는 것은 아름답다, 추억속의 아름다움은 영원히 남아있기 때문에 사라져 가는 것일 지라도 아름답다” 라는 것이다. 앙코르 유적지는 앙코르왓과 앙코르 톰 및 그 외곽지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앙코르왓은 앙코르왓과 프놈 바깥, 앙코르 톰은 앙코르 톰, 바이온, 바푸온, 코끼리테라스, 문동왕테라스가 있고 앙코르 동부에는 타프롬, 앙코르 북부에 프레이아칸이 있으며 서바라이 및 서메본, 톨로스에 바퐁, 반띠아이스레이가 있다.

앙코르왓은 크메르어로 도시의 사원이란 말로 장엄하고 우아한 곡선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사원이고 앙코르 톰은 대도시국가란 의미로 한변이 3km, 높이 8m의 라테라이트(紅土)로 성벽을 쌓은 성곽도시로 한가운데에 국가사원인 바이온이 위치해 있고 바푸온사원을 비롯하여 왕궁, 코끼리테라스, 클레앙과 같은 수많은 유적이 모여있다.

크메르 문명은 힌두교사상이 모든영역에 침투되면서 생활과 건축에 그 세계관을 반영시켰고 사원의 구조는 천상의 중심산인 수미산(Sumeru)을 지상에 본 딴 것이었다. 앙코르왓사원은 수리아바르만2세(1113~1150)가 비슈누신에게 바치기 위해 지은 사원으로 37년간 건설되었다. 앙코르 왓은 캄보디아 최북단의 끝자락을 관통하는 당그렉산맥이 태국의 국경과 한계를 짓고 뻗어있다. 화창한 봄날에는 쿠렌산과 거대한 톨레삽 호수를 볼 수 있다. 캄보디아의 유명

한 자야바르만7세는 1181년에 왕위에 올라 즉시 힘차게 그의 새로운 앙코르 톰의 수도를 통치하기 시작했다. 그는 불교로 왕국을 통일하고자 왕립도로주변에 많은 사찰을 짓기 시작했기에 수도와 근접하거나 그 안에 바이온사원, 타프롬사원, 프레이 칸, 반테이 스투이 같은 유적들이 있다. 9~15세기에 거쳐 인도차이나반도 중앙부에 앙코르왕조가 융성하여 지금의 캄보디아 북쪽 시엠립에 거대한 왕조를 만들었으며 수세기동안 어둠의 저편에 잊혀져 있었다.

최초의 캄보디아제국은 동남아 대 힌두왕국이었던 후난(Funan)제국을 건설하였으며 우리나라의 신라왕건 때이다. 건국이후 후난왕국은 약4~5백년동안 주변국을 영향권 안에 두고 조세와 조공을 받으며 거대한 제국으로 번영하였고 인도네시아 자바왕국 때 캄보디아는 자바왕국의 속국이 되었으며, 그후 자바왕국을 침략하여 왕자를 모시고 와서 첸라왕조를 세우고 지금의 프놈펜수도인 캄보디아가 생겼다.

자야바르만 2세(802~850)는 캄보디아 지역을 통일하고 크메르왕국을 세웠다. 당시의 수도는 불교의 유적으로 유명한 앙코르 톰이다. 그는 불교는 물론 힌두교도 동시에 숭상해 그때까지 공존하던 두 종교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자야바르만 7세는 수도를 재건하여 앙코르 톰이라 하고 스스로를 보살이라고 불렀다. 크메르에서 1431년까지 첸라왕조의 번성기였고 1431년 시암알타이 왕조에 의해 무너지게 된다. 시암족의 앙코르 침략은 위대했던 600년 문화의 종말을 고하고 크메르 민속무용인 압사라춤이 단절된 것도 이때이다. 자야바르만 7세 이후 크메르 제국은 강력한 이웃나라인 베트남왕국과 태국의 톰바구니에서 시달리게 되었는데, 이후 프놈펜으로 천도하고 1431~1850년까지 별탈 없이 지내게 되었다. 1850년 프랑스에서 당시 앙코르왓을 개척하려 와서 밀림을 헤치고 깨어나 보니 앙코르왓을

발견하게 되었다. 1850년 프랑스가 유물을 파헤쳐 프랑스로 가져갔으며 1860년 프랑스 식물학자인 앙리무오(Henry Mouhot, 1826~1862)신부와 어부1명이 와서보고 사원의 스케치와 여행기를 서유럽에 소개한 이후에 많이 알려지게 되었다.

프랑스의 보호령으로 있던 시기에 프랑스 고고학자들은 정글로 덮인 앙코르 사원을 비롯하여 많은 역사적 유적을 복원하기 시작했다. 또 앙코르왕조시대가

번성하던 당시 원나라 사절단으로 앙코르왕조를 방문하였던 주달관의 “진랍풍토기”에 크메르 고대연구의 중요한 기록을 남겼다. 프랑스 총독부는 사이공쪽에 프랑스 탐사대를 보내고 유물들을 훔쳐서 루블박물관 아시아관 2층에 전시하였으며 1431~1860년 기간은 잊혀진 세월이 되었다. 1860년에 프랑스는 베트남을 식민지화하였고 캄보디아왕은 우리끼리 살기어렵다고 판단하여 1863년 자발적으로 프랑스에 신탁통치를 의뢰하였다. 이로서 베트남, 캄보디아, 프랑스식민지가 되고,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는 영국 식민지가 되었다. 이나라 종교는 원시국교가 발전하였고 비라문교(떠드는것)를 믿고 인드라신을 믿으며 내려왔다. 힌두교는 드라마신(창조의신)이었고 비시뉴신은 창조, 유지의 신이다. 시바신은 파괴의 신으로서 눈이 3개이다. 눈 1개를 더뜨면 세상을 파괴한다고 하였다. 인도종교가 들어와서 발전하였고 인간이 태어나서 최고의 왕만이 지위에 올라간다고 믿게 되었다. 또한 대승불교와 소승불교가 있는데, 반데스레이는 802~879년의 이나라 왕궁이다.

앙코르왓은 사방 1.5km의 앙코르 지역에서 가장 큰 사원으로 20만명과 코끼리가 동원되었고 주야2교대로 1113년~1150년까지 37년 동안 건설되었다.

앙코르왓은 앙코르건축과 예술을 집대성하고 석조건축물의 진수를 보여준다. 연못에는 물고기와 연꽃이 피어있다. 앙코르왓 건립과 관련한 전설로 그 연못에 하늘에서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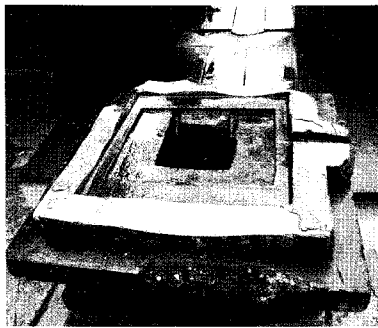
앙코르왓 천상계에 선 일행

는 옥황상제의 아리따운 공주가 목욕하였는데 촌장이이디어로 마을 청년들이 연못에서 연꽃 이름을 걸고 가장 향기로운 꽃을 키운 사람과 그공주를 결혼시키도록 했다. 마을 청년들이 연꽃을 기르고 3일전 심사하여 당선된 한 청년이 연꽃공주와 결혼하기로 하였는데 아침에 청년의 연꽃이 없어졌다. 그 청년은 하늘을 보고 울었다. 옥황상제가 어느 날 산책 나와서 젊은 청년이 울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나중에 보니 그 공주가 그 꽃을 꺾어서 하늘나라로 가져간 것을 알았고, 그러자 너무나 공주의 마음이 이파서 그청년과 같이 살게 되었으며 귀여운 아들을 낳았다. 옥황상제가 손자 좀 보자고 하여 할아버지가 궁전을 똑같이 지어주었다. 옥황상제가 신하를 동원하여 1일 만에 지어진 것으로 시바신을 모시는 사원인데 세계7대 불가사의로 전180m, 후 250m로서 힌두교 사상으로 우주는 운하를 건너고 앙코르왓으로 들어오게 설계되어있다.

장서각 주변에는 슈가팜나무가 있으며 1975년 크메르루즈군이 정부군과 싸우면서도 이 유적지는 서로 다치지 말자고 휴전을 할 정도로 아끼는 사원인데 비시뉴신이 있는 명예의 전당까지는 350m이며 천상의 계단 각도는 0.5°로 해가 동쪽-서쪽으로 지는 것을 맞춰서 건설하였다. 불가사의한 앙코르왓의 진주 보석알로서 4통팔달로 되도록 건설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앙코르왓의 유적은 70%가 복원불가능하다고 한다.



▲ 바콩사원 입구 코브라



▲ 반데이스레이 사원 요니

▶ 바콩사원 수미산담 진경



Cambodia Angkor Wat

프놈바켄산 사원은 1001~1002년 유일하게 산위에 만들어진 67m높이의 사원이며 야소바르만 1세가 5층으로 지은 피라미드형 국가사원으로 앙코르 시대의 토대가 된 지역이다. 이 사원은 사암의 언덕에 지어서 이곳에 오르면 앙코르와트를 비롯하여 바라이 등을 볼 수 있다.

롤로스지역의 빠레이코이는 신성한 소의 사원이라고 하는 왕릉으로, 현무암으로 만들어진 호토 라멜라이트라는 돌을 사용했다. 이것은 잉그라바르만 1세, 879년 첸라왕조를 만든 자야바르만 1세의 능으로 시바신이 소를 타고 다니는 것을 하얀소로 표현하였으며 화장터를 확장해서 봉분으로 모셨다.

롤로스지역의 바콩(Bakong)사원은 877년 인드라바르만 1세가 등극하여 881년에 지어진 사원으로 롤로스 도시의 중심에 있으며 시바신과 비시뉴신을 위한 힌두사원이다. 사람과 혼재된 사원으로 우주는 은하수 건너 우주에 떠서 오작교를 건너 지구로 간다. 제일 높은산인 수미산은 신들이 사는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 1층은 미물계, 2층은 인간계, 3층은 천상계로서 불교는 수미산으로 정한다. 인간계는 계단이 동서남북 4개의 계단으로 50° 되어야 올라갈 수 있고 천상계는 4발로 올라가고 70° 되어야 오를 수 있다. 부채처럼 된 것은 코브라 7마리가 모서리를 합친 것이고 뱀은 생명과 탄생의 신비를 의미한다.

비스키는 나가상으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가교의 역할

을 한다. 힌두교풍습에 남자는 지참금을 가지고 여자집으로 장가를 가는데, 처갓집에서 얼마를 주면 3일 밤낮을 의식을 하고 결혼식을 올리며 장인장모는 이 사위를 계속 부려먹는다.

롤로스지역의 룰레이(Lolei)사원은 야소바르만 1세가 아버지에게 헌정하기위해 893년에 만들어진 힌두사원으로 벽돌을 920°C로 가열해 스코터 조각방향(네티넨조각방향)으로 만들고 건축은 사암으로 만들었다.

개미들은 비오기 전에 집을 만드는데 이런 점토가 부드러워 이것을 수거하여 슈가팜나무 점액과 기름나무에 열대 쾅기름과 혼합하여 벽에 발라서 조각한다. 또한, 인공섬위에 사원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것은 봉분으로 동서남쪽은 문이 막혀있고 사당중심에는 링가가 있는데 링가는 남근석을 말하고 요니는 여성자궁을 말한다. 시바신과 비시뉴신은 남근석으로 만드는데 인도에서 최고의 신은 시바신이다.

자야바르만 7세 왕은 英明한 군주였으며 앙코르왕국은 1140~1180년까지 참파족에 의해 수모를 당했는데 참파족과 전쟁을 하고 1180년 9월에 메콩강이 범람하여 역류하였고 천민이들이 참파족과 전쟁을 하고 역습공격을 해서 베트남쪽으로 몰아냈다. 이때 자야바르만 7세가 최고사령관에 군림하였으나 어머니가 생각나서 외할아버지가 하야하고 자기가 자야바르만 7세가 되었다. 1181년 등극하여 5년

간 전쟁을 하였으며 태국, 말레이시아, 미얀마를 점령하였다. 크메르국 중 가장 큰 변역을 누렸고 앙코르 톰을 건립하였으며 뿌레이칼 사원은 아버지를 위해서, 타프롬 사원은 어머니를 위해서 지었고 2,700명의 관리와 2,000명의 무희를 두었고 황금접시 500kg짜리가 2개, 진주 20만개, 보석 4,540개, 중국산커튼 876개, 비단침대 512개로 휘황찬란하게 하였다. 1431년 알타이 왕조가 쳐들어 와서 크메르족이 이동하였고 1431~1850년까지 밀림지역이 되었다.

스푹이라는 열대무화과나무가 덮였고 부드러운 돌인 砂巖과 열대새들이 열대무화과나무 열매를 먹고 배설을 하면 씨가 자라나 틈새에 끼어서 수분을 찾아 뿌리를 내리다 토양을 만나면 무럭무럭 자라게 된다.

현재 타프롬(Ta Prohm)사원은 영국국동학회에서 보수공사를 하고 있다. 나무를 살리기 위해 인근 나무들의 간섭을 줄이려 성장억제제를 주입하였다. 더 이상 자라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으며 이것이 폐허속의 아름다움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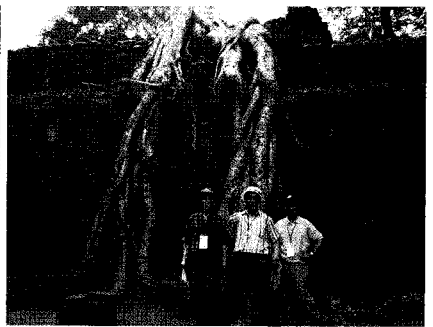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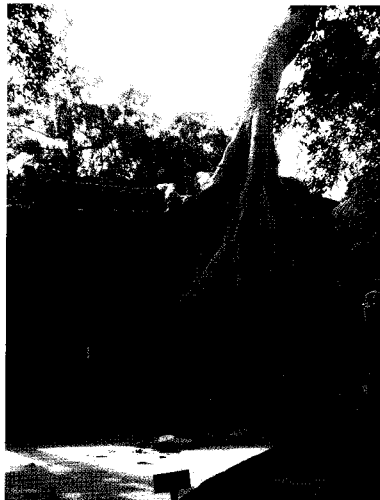
자야바르만 7세가 대승불교를 많이 하는 이유는 자기의 할아버지를 목베고 나서, 계급적사회보다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려고 했고 대승불교를 위해서 어머니를 위해서 만든 사원으로 내부에는 일명 보석의 방이 있다.

앙코르 톰에 들어가려면 해자를 건너야 하는데 앙코르 톰은 위대한 도시라고 지칭되어지는 유적지로 톰은 자야바르만 7세(1181~1201)가 통치한 기간에 지어진 바이온 양식이다. 이곳에는 코끼리테라스, 문동왕테라스, 바이온사원 등 초기유적들이 성안에 있다. 그는 앙코르왓 영토를 진정시키고 통일시키는데 성공적인 군사행동들을 수행하였고 귀중하게 그 영토들을 점령하여 늘려나갔다. 왕실도로의 도로망을 건설하였고 모두 12세기말부터 13세기초까지 그가 건설하였던 그 왕궁의 새 수도인 앙콜 톰으로 연결하였다.

앙코르유적지 대부분은 해자와 성벽으로 둘러싸인 양식이며 신들의 세계를 재현하는데 불가결한 요소로 여겨진다. 성벽은 신성한 히말라야 산맥을, 그안의 사원은 세계의 중심인 수미산을 의미한다. 그 도시는 한쪽이 3 km이고 100m 의 해자로 둘러싸여 있었다. 5개의 문이 북, 동, 서쪽으로부터 이도시로 인도되었다. 바푸온사원과 왕궁을 포함한 10세기의 유적과 마찬가지로 자야바르만 7세시절에 이 도시에 건설되었던 바이온사원, 코끼리테라스, 문동왕테라스가 발견되었다. 위대한 건설자인 자야바르만 7세 왕의 뛰어난 통치기간동안 앙코르왓 왕궁의 거주자들의 일상생활인 시장과 음식준비, 닭싸움, 무당, 부유함을 생생히 묘사하여 제공하고 있다.

바이온사원(창과 방패)의 하이라이트는 바이바르만 7세가 최고의 크메르제국을 지향하여 자기를 위해서 만든사원으로 수미산 정 중앙기준 54개 탑이 있다. 1개 중심 216개의 모음이다.

캄보디아앙코르 미소는 바이온 양식 조각가가 감탄을 금치 못한다. 바이온사원은 사방에 관세음보살의 얼굴을 가진 54개의 탑이 서 있는 장엄한 건축물이다. 자야바르만 7세는 불교를 숭배하는 첫 번째 왕이였고 그는 불교도 우주철학에서 세계의 중심인 수미산의 상징으로서 이 도시의 중앙에 바이온사원을 건설하였다. 제 1회랑에 크메르군과 참족간의 전쟁이 陽刻으로 묘사되었다. 얼굴은 보통 2m



▲ 타프롬사원 무화과나무 아래서 필자와 친영선, 박종수 씨
◀ 타프롬사원의 지붕을 타고 내려오는 무화과나무

내외이며 상층부의 중심탑 높이는 64m이다.

코끼리테라스는 앙코르 톱 중앙에 위치한 긴 테라스로 왕의 광장 앞에 있다. 코끼리 테라스 앞의 넓은광장은 왕의 군대가 정복을 위한 원정과 승리후의 귀환 시에 열병식을 치루기 위해서 보존되었다.

코끼리테라스는 궁터만 남아있다. 자야바르만 7세가 불교 스타일로 짓게 했으며 십자로의 중앙에는 왕이 앉았고 사신을 맞이하거나 외국인들을 만나기 위한 대기소였다.

앙코르동부의 타프롬사원은 자야바르만 7세가 앙코르 톱을 만들기 전에 모후의 극락왕생을 기리기 위해 세운 불교사원으로 사원 안에는 화랑으로 연결되어 있었으나 자연에 침식되어 붕괴될 지경에 달했다. 침식의 원인으로는 사원주변에 유난히 무성한 밀림과 새들의 분뇨 속에 섞인 씨앗이다. 성소로 가는 길목의 회랑의 입구에 자라고 있는 벵골보리수나무가 있는 타프롬사원에는 아무런 복구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정글이 발견된 이후 그대로 남아있다. 타프롬사원은 버려진 이후 오랫동안 손안대고 정글의 중앙에서 발견된 사원의 한 예이다. 거대한 나무의 뿌리들과 벽은 정글의 위대한 세월의 힘을 증언한다. 이러한 고대의 흔



플레이사원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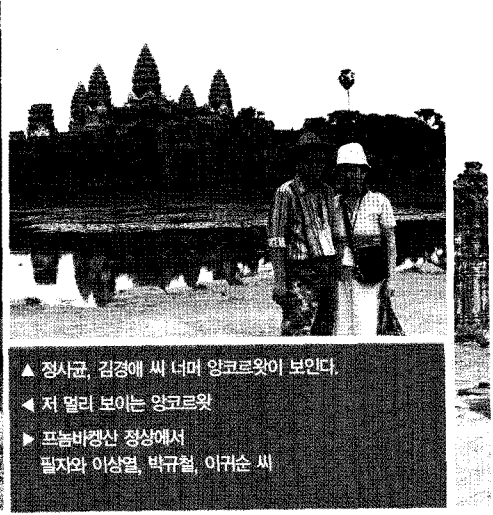
적들을 보노라면 자연의 힘과 역사의 무게에 의한 감동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아마도 앙코르왓과 유사한 흔적들이 아직도 캄보디아의 삼림 속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버린 오랜 세월동안 그 나라를 괴롭혔던 전쟁 때문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캄보디아의 열대에 있을 것이다. 그런 유적들은 즉각적인 측량과 복구작업을 요구할 것이다.

반테스레이 사원(Banteay Slay)은 반테이스레이가 여자의 성이란 뜻이고 사원중의 보석이라고 불리며 아주 아름다운 곳이다. 다른 사원은 왕의 지시로 지어졌지만 계급사회인 브라만 계급의 승려인 브리만 야즈나바라하(지식인)가 라젠드라바르만 2세를 위해서 967년에 만들어진 사원으로 홍토 라텔라이트를 사용하여 만들어진 넓은 사원이다. 홍토 라텔라이트는 현무암 돌로서 이 돌은 철분부식으로 구멍이 송송 뚫려있다.



▲ 앙코르왓에서 필자와 김경애, 박중수, 이귀순 씨
▲ 바이은사원 관음보살상 전경

Cambodia Angkor Wat



▲ 정사균, 김경애 씨 너머 앙코르왓이 보인다.
 ▲ 저 멀리 보이는 앙코르왓
 ▶ 프놈바켄산 정상에서
 필자와 이상열, 박규철, 이귀순 씨

이 사원은 1914년에 발견되었으며 1924년 프랑스의 문화공보부 장관인 앙드레말로가 압살라와 천상은 모서리 부분을 떼어 훔쳐가다 잡혔고 다시 받아서 복원하였다. 사원의 벽감에는 매우 아름다운 여신상과 남신상이 정교하게 조각되어있고 앙코르예술의 보석으로 일컬어지는 반테이스레이 조각의 핵심이다.

앙코르왕국의 초기시절의 흔적으로 앙코르는 그 수도가 오늘날 시엠랩이라고 알려진 메콩강 저지대로부터 수도를 옮겼을 때부터 통일된 왕국으로 나타났다. 802년 자야바르만 2세는 프놈쿠렌에서 앙코르의 첫 번째 왕으로서 등극을 하고 그 당시에는 앙코르제국의 기반은 왕국의 중심지로서 이지역에 건립되었다. 877년에 로우루오(Roluoh)라고 알려진 곳에 첫 번째 수도가 건설되었고 바콩사원 등이 건설되었으며 8세기에 동메본사원(East Mebon Temple)이 건설되었다. 당시 사찰의 주 구조는 바닥과 외부벽은 열대지방 등에서 볼 수 있는 紅土(Laterite)로 만들어진 벽돌로 건설되었고 상방(intels)과 가짜문(False door)은 砂巖을 사용하였다. 가장 대표할만한 사찰건축인 반테이스레이(Banteay Srei)는 분홍색 砂巖으로 지어졌다. 표면을 장식한 섬세한 많은 浮彫는 높은 수준이며 현존하는 앙코르지역 중에서 가장 위대한 걸작으로 정갈하게 묘사되었다.

킬링필드(Killing Field)는 프놈펜부근의 역사적인 비극의 장소이다. 1975년 폴포트가 이끄는 크메르 루즈군은 뚜

얼슬랭박물관에 가두었던 사람들을 남녀노소 구분없이 집단학살하여 이곳에 묻었다. 처형 할때는 아깝다는 이유로 총알을 사용 않고 쇠막대기로 뒤통수를 치는 잔인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후 캄보디아 잔통양식에 따라 추모탑을 세웠다. Killing Field는 768개로서 무고한 양민을 죽인 장소이다. 킬링필드 사건때 Chileren's Hospital의 2500명 명단에 있는 의사는 다 죽었다.

왓트마이 사원은 학살당한 사람의 유골을 모셔놓은 곳으로 프놈펜에는 1975년 당시에 250만이 살고 있었는데 정권을 잡은 크메르루즈군은 저녁때 각 가정을 방문하여 국민을 잡아가두고 시골로 강제이주 시켰으며 프놈펜의 1,000여가구 650만명 에게 강제노역을 시키고 족쇄를 채웠다. 1975년부터 1979년까지 170만명의 양민이 478명의 폴포트 군에 의해 참혹하게 학살당했다. 결국 79년 캄보디아가 베트남 침공을 받게 되었으며 폴포트는 1998년 심장마비로 죽었으나 보석 등을 많이 감추어둔 잔당들은 아직도 잘살고 있다.

캄보디아의 근세사로는 캄보디아왕국(Kingdom of Cambodia)의 주요종족은 크메르(Khmer)족이며 크메르어를 사용하고 메콩강 중류지역인 캄보디아 평원에 집단거주지를 형성하고 있으며 동남아시아에서 가장먼저 힌두교와 불교문화를 받아들여 힌두·불교문화의 꽃을 피운 종족으로 Ankor Watt가 이를 증명해주고 있다. 이나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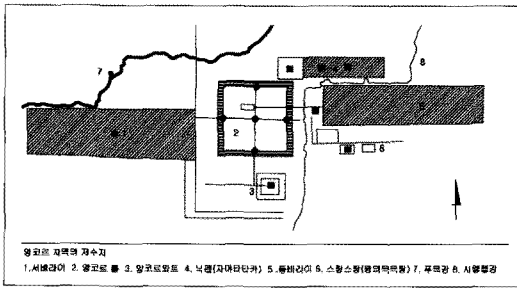
최근 시아누크와 폴포트(크메르루즈) 때문에 피폐해져 있다. 시아누크는 1922년생인데 1925년생 폴포트는 부유한 농부의 아들로써 폴포트 이모가 시아누크의 후처였으며 여조카가 궁중무용수였다. 폴포트는 똑똑하였고 국비장 학생으로 프랑스유학을 하고 유고슬비아에서 자원봉사를 하게 된다. 거기서 공산주의 레닌사상에 심취하고 프랑스 공산주의를 배우고 대학에서 유급을 당한다. 이런 일로 본국에 소환을 당해서는 어린이교사로서 애들을 가르치게 되었고 1960년에 공산당서기장과 1970년 닉슨대통령, 외무장관 헨리키신저, CIA등을 통해 캄보디아의 론놀 총사령관을 뒤집어놓고 시아누크를 몰아낸다. 중국의 원로를 통해서 소련으로 가서 정권을 뒤집고 75년에 정권을 잡았다. 론놀의 부정부패와 공산주의 폴포트정권으로 미국이 베트남을 포기하게 된다. 론놀은 망명을 하게 되고 시아누크는 북한으로 가 폴포트의 손을 시아누크가 들어줘 1975년 9월 17일 크메르루즈국으로서 프놈펜에 무혈입성하게 된다. 1979년 폴포트는 “크메르루즈는 앙코르왓을 가지고 있다. 메콩강을 가진 나라이다” 라면서 10만 병력으로 베트남을 침공해 캄보디아는 프놈펜이 함락되었다. 1980년에 크메르루즈의 훈센이 캄보디아에 들어오고 1998년까지 300만명이 죽임을 당하였다. 수도 프놈펜은 8만명으로 베트남 힘으로 정권이 안정되었고 시아누크의 아들이 시아모의 왕으로 재위하였다.

앙코르왓의 건축은 앙코르 왕도의 유적이 석조건축이며 힌두교와 대승불교신앙을 반영한 종교건축물이다. 크메르 건축의 대표적인 사원으로 평가될 정도로 크메르예술의 정수로서 앙코르 와트, 타프롬, 프레 룽과 같은 사원은 푸른 색사암을 주로 사용하였고 반테아이 스테이는 크메르 건축의 보석으로 평가받는다. 크메르인들은 목조에서 석조로 이동하면서 흙을 구워서 만든 연와 사암, 라테라이트를 사용하였는데 “여인의 성체”라는 이름처럼 우아하고 아름다움을 자아내는 이사원은 붉은색 사암과 라테라이트로 건축되어 해질 무렵에 사원전체가 불타는 듯한 착각에 빠지게 한다. 건축은 거의 직사각형에 가깝지만 동서방향으로 는 약간길게, 남북방향으로는 약간 짧게 장방향으로 이루어져 있고 비율은 11~1.3:1 정도이다.

앙코르왓은 건축에 대한 수수께끼를 품고 있어 건축의 도나 사원의 이름을 정확히 알수 없으며 역사에 대한 기록도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메루산을 지상에 표현한 것이 사원이기 때문에 산 정상에 건축한 경우가 많았으며 평지에는 피라미드 형태의 계단식 사원을 만들었다. 앙코르왓사원의 건축양식은 인도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나 건축물의 형태와 석조장식 등은 대체로 앙코르왕국의 독자적인 양식을 지니고 있다. 건축재료로는 식물혼합재료를 접착제로 사용한 벽돌과 꿀랜산에서 채집한 사암, 동남아 지역에 많은 라테라이트라는 홍토로서 건물의 기초나 내부에 많이 사용하였는데 마르면 표면이 거칠고 구멍이 나서 사용이 어렵다.

앙코르왓의 도로건설은 당시 동남아시아의 모든 도로는 앙코르왓으로 통한다고 표현될 정도로 제국의 고속도로를 정비했다. 자야바르만 7세가 앙코르왓의 세를 크게 확장할 수 있었던 원인중 하나는 제국의 도로망을 정비하였기 때문인데 앙코르에서 서쪽으로 225km에 달하는 태국의 피마이지역까지 도로공사를 하였고 서쪽으로는 말레이 북부까지 진군하고 북쪽으로 라오스 북부, 동쪽으로는 참파국의 일부를 편입하여 최대의 영토를 구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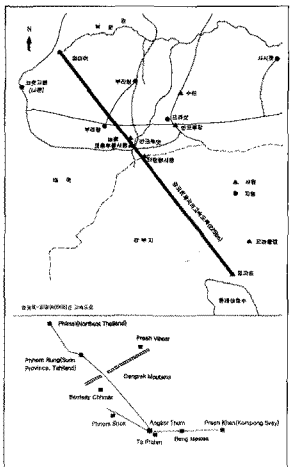
크메르사회는 앙코르문명의 개발과 관련하여 메콩강을



Angkor Wat 지역의 구조
 1. 서바라이 2. 앙코르 3. 앙코르도르 4. 니켈(가대단위) 5. 동바라이 6. 스랑스랑(왕의목욕탕) 7. 푸렝강 8. 시엠렝강

▲ 앙코르 관개시설
 ◀ 왓트마이 킬링필드 기념관
 ▶ 앙코르 도로망

Cambodia Angkor Wat



배 놓을 수 없다. 메콩강의 계절적인 범람을 제방을 따라서 부유한 농작물의 수확을 가져다주었고 어업의 풍부한 자원이 되었다. 캄보디아는 건조한계절과 우기가 번갈아오는 계절풍 기후(monsoon climate)이다. 홍토가 있는 중앙캄보디아평원은 많은 양의 철분을 함유하고 있어 농업에 적합하지는 않다. 그래서 크메르인들은 이 상대적으로 척박한 땅에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문명중의 하나를 건설했다. 고대크메르인들은 밝은 피부에 걸출한 외모를 하고 몸에 헤모그로빈 B라는 물질이 풍부해서 풍토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였다.

앙코르왓의 관개시설건설은 앙코르와트의 용성이 수자원의 조절에 의해 결정된 것과 같이 앙코르지역은 건조한 열대성 기온으로 년평균 강수량은 1,500~2,000mm가 되었다. 고대시절부터 물의 저장은 그지역의 거주자에게 숙명 이었다. 북서지역 겨울계절풍의 홍수와 동시에 그후 여름 북서 계절풍(Monsoon)의 기간 동안 사용할 물의 저장수단을 개발한 것은 앙코르왓 시대였다. 앙코르문명에서 큰 발명은 제2의 강과 매년 우기에 강으로 부터 물을 조절하는 공학적인 기술이었고 앙코르개발과 성장을 뒷받침해 주었으며 70,000ha의 논에 물을 대주었다.

앙코르는 쿠렌산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시엠렝강으로 둘러싸인 거대한 부채형상의 지역이다. 매년 3모작의 쌀 수확을 위해서 엄격하고 주의 깊은 저수지의 통제가 필요하였다. 위대한 왕들은 저수지를 건설하여 물의 보급을 관

리하였고 쌀 경작용 논에 물을 대는 것을 보았다.

석조비문에 따르면 앙코르왕이 목욕재계를 위해 매본사원 저수지의 중간지역을 방문하였고 최근발견에서는 실제적으로 금속파이프를 이용해서 저수지의 수위를 관측했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사원은 모든 활동의 중심이었으므로 대규모 급수시설이 필요했으며 대규모 인공호수인 바라이(baray)건설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바라이는 일년 중 5~10월까지 우기에는 홍수조절용, 건기에는 저수기능을 담당하며 대규모 전원지대에 물을 공급하는 대수로망의 핵심이었다. 당시자료에는 서 바라이에는 톤레삽호수에서 거슬러온 물고기로 가득하고 풍부한 쌀과 열대과일로 앙코르에는 모자란 것이 없었다고 한다. 앙코르지역의 저수지로는 서바라이, 앙코르 와트, 니켈, 동바라이, 스랑스랑(왕의목욕탕), 시엠렝강 등이 있다. 앙코르의 지형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경사도가 0.1%정도로서 이를 이용하여 평야지대에 물을 공급했으며 앙코르 지역에 건설된 4개의 저수지에서 농지에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면적이 9,000만평이 되었다.

바라이호수는 인공호수로서 바라이 호수에는 매본섬이 가운데 있고 시엠렝지역에 물을 공급해 주는 주요수자원이다.

톤레삽 호수는 담수호로서 우기에 메콩강에서 역류한 물이 흘러들어와 호수의 수량이 건기에는 3,000km³, 우기에는 3배쯤 늘어나는 천연적으로 조절기능을 가진 호수로서 어



▲ 바이온사원 입구의 필자(조규영)
◀ 톤레삽호수의 소녀

류에게 최고의 산란장소와 사람에게 풍부한 어업자원을 제공해주는 세계에서 몇 안되는 담수호수이다. 호수중앙에는 식수가 되는 깨끗한 물이 있고 물고기가 많이 잡힌다. 톤레삽은 캄보디아어로 “淡水의 넓은피짐”이란 의미이며 수심은 대개 1~2m 정도이다.

웨스트메본 호수는 수리아바르만1세가 아버지에게 회사한 호수로서 캄보디아 시엠립에 위치한 유원지이다. 국립 박물관으로서 서민들의 애환이 담긴 곳이다. 인공섬으로 비시뉴신을 모신 석상이 있다.

양코르왕국은 오늘날의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베트남 등 전 인도차이나 반도를 수세기 동안 지배하였다. 크메르 제국은 문화면에서도 유명한 Angkor Watt을 남겼으며 왕의 무덤이고 비시뉴신전이 있다. 석조건축물은 현세의 불가사의로 현존하는 가장 위대한 종교건축물로 남아있다. 양코르왓은 프랑스고고학자들에 의해 발굴된 캄보디아를 대표하는 유적으로 동남아를 대표하는데도 손색이 없는 인류문화 유적이다. 이 유적은 크메르족이 9세기부터 12세기까지 수세기에 걸쳐 남겨놓은 비시뉴신과 합일하기 위해 세우기 시작하여 수리아바르만 2세가 완성한 사원으로 장식과 조각의 정교함이 세계적이다. 양코르 톰은 양코르왓 북쪽에 위치한 유적으로 양코르 톰이 세워진 것은 9세기 말로 인드라바르만의 아들 야소바르만1세(889~900)는 수도를 양코르 톰으로 옮겼다. “우리는 염려없다, 불교라는 보물을 잃지 않는한.., “동남아 상좌 불교국가에서와 같이

캄보디아인들은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사후에도 역시 불교 안에 존재한다. 여기서는 가난한 사람이 부자를 안 부러워하며 부자도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다. 그래서 행복지수가 저소득국가일수록 크다.

2008년 6월초 현산남초등학교 11회 동창들인 14명의 친구들이 다녀온 캄보디아 양코르왓 여행은 13세

기의 동양최대 걸작품을 만난다는데 기대감으로 갈 때부터 마음이 들떠 있었다. 5일간의 여정이 흥분의 연속이었으며 친절한 가이드였던 캄보디아의 박남진 사장께 감사드리고 박은자 동문이 빨리 병상에서 회복하기를 기원한다.

양코르왓은 중학교 사회선생님인 윤원희 처제에게도 한번 가보기를 권하고 싶고, 아무런 탈 없이 여행에 동참한 우리 친구들인 천영선 회장, 박규철, 이귀순, 김운, 이순자, 이미자, 박은자, 김경애 친구와 이상열, 박중수, 유영배, 정사균, 윤병록 친구에게 감사드리며 국내에서 많은 후원을 아끼지 않은 박수봉, 최연실, 최만천, 박용석, 윤재옥, 나종용, 위동안, 정정선, 신재천, 장복일 친구에게도 감사드린다.

※ 본 기고문은 조규영 회원의 캄보디아 여행기로 동행한 초등학교 동창 등 특정한 이름이 게재된 점에 대해 회원 및 독자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이 글 쓰기에 도움이 된 글들 및 자료

1. 《ANGKOR》(Michael Freeman, RIVER BOOKS, 2008)
2. 《ALONG THE ROADS TO ANGKOR》(Yoshiaki Ishizawa, Tankosha Publishing Co.Ltd., 1999, pp.63, 162, 170)
3. 《ANGKOR WATT遺跡》(石澤良昭, (株)日本電波, 2007)
4. 《베트남 양코르왓》(전재국, (주)시공사, 2003)
5. 《양코르왓신비의캄보디아》(송성경, 정은문화사, 2002, pp.2)
6. 《태국북부캄보디아라오스》(안민기, 김영사, 2000)
7. 《양코르왓 신들의 도시》(최장길, 양코르출판사, 2007.03, pp.29, 71)